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미옥
세경대학교 간호과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tress Coping Styles on Problem Solving Ability

Mi-Ok Yu

Department of Nursing, Saekyu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M지역의 간호학과 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 정도는 3.36 ± 0.30 점(5점 척도) 이었고,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3.42 ± 0.38 점(5점 척도)이었다. 스트레스 대처행위 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하위영역은 문제중심적 대처행위로 3.60 ± 0.42 점이었고, 문제해결능력 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하위영역은 명료화로 3.50 ± 0.51 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정적 상관관계($r=0.53, p<0.001$)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 중 문제중심적 대처행위($r=0.66, p<0.001$), 긍정적 관점($r=0.53, p<0.001$), 사회적지지 탐색($r=0.42, p<0.001$)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행위 중 문제중심적 대처행위($\beta=0.416, p<0.001$)와 긍정적 관점($\beta=0.257, p=0.002$)이었으며, 두 요인은 문제해결능력을 54.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문제중심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위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 적용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stress coping styles of nursing students on problem solving ability. Data were collected from 142 nursing students in the M-area from September 20, 2016, to November 30 and analyzed using SPSS WIN 21.0. The average degree of stress coping styles was 3.36 ± 0.30 (5 point-scale), problem solving abilities was 3.42 ± 0.38 (5 point-scale). Among the subdomains of stress coping styles, problem focusing was highest, with a score of 3.60 ± 0.42 . Additionally, among the subdomains of problem solving ability, clarification was highest, with a score of 3.50 ± 0.51 . The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tress coping styles ($r=0.53, p<0.001$) and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blem focusing ($r=0.66, p<0.001$), positive point of view ($r=0.53, p<0.001$), and social support navigation ($r=0.42, p<0.001$). In addition, the factor with the greatest effect among subdomains of stress coping styles was problem focusing ($\beta=0.416, p<0.001$) and positive point of view ($\beta=0.257, p=0.002$). These two factors were found to explain 54.3% of the variance in problem solving ability.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pplication of teaching-learning methods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students' problem-solving ability through problem-oriented and positive stress coping behavior.

Keywords : Stress coping styles, Problem solving ability, Problem focusing coping, Positive point of view coping,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Mi-Ok Yu(Saekyung Collge.)

Tel: +82-33-371-3234 email: miok732000@hanmail.net

Received December 6, 2017

Received (1st December 26, 2017, 2nd January 8, 2018)

Accepted March 9, 2018

Published March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책임감과 엄격한 행동규범 등을 학과수업과 임상실습을 통해 습득해 가며 타 학과 학생들보다 역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낮은 병원환경에서의 임상실습, 국가고시에 대한 압박감 등은 간호대학생에게 높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2], 부모의 권유나 성적에 따라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낮아 학과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된다[3, 4].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환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5], 이러한 스트레스는 환자와의 의사소통능력을 감소시키고 간호문제해결을 어렵게 하여 간호사가 되기 위한 역할습득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6]. 간호대학생이 목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면 역할갈등이 발생되므로[7],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와 관련해 Lazarus와 Folkman[8]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으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특히 Folkman과 Lazarus[9]는 스트레스에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대처할 때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Park과 Sun[1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문제중심적 대처행위와 부적 상관관계, 정서적 대처행위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처행위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더 세분화하여 파악한다면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증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은 시뮬레이션 실습이나 임상실습에서 효과적인 문제해결전략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공 이론과목에서는 국가고시를 위한 주입식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11],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방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문제해결능력은 임상적 추론과 판단, 비판적

사고를 핵심으로 하는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중요 요소이며 간호역량이다[12]. 또한 졸업 후 급변하는 의료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문제해결능력은 필수라 할 수 있다[13]. 그러나 다양한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처한다면 문제해결에 대한 통찰력이 감소되고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14],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찾아 대처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과생활 중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중요 과제일 것이다. Thompson 등[15]도 스트레스는 문제해결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Park[16]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험연구를 하였고,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rivastava와 Kiran[17]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문제해결능력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Synder[18]은 스트레스 대처의 기제와 방법이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적응능력을 강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사용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스트레스 대처가 문제해결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행위의 사용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유용한 대처방안을 확인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M지역에 소재하는 일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7 program[19]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 분석의 경우 예측요인의 수 11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5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35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이 중 누락되거나 편중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총 142부(94.7%)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스트레스 대처행위

스트레스 대처행위는 Folkman과 Lazarus[9]에 의해 개발된 Way of Coping 도구를 Oh와 Han[20]이 번역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 영역은 문제중심적, 희망적 관측, 무관심,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점, 긴장해소의 총 6개 영역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대처행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Oh와 Han[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0이었다.

2.3.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KEDI(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에서 Lee 등[21]이 개발한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진단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은 문제의 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 및 실행, 수행평가의 총 5개 영역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3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의 자율성을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동의서를 받고 자가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불참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연구도중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 중 연구진행 동안 알게 된 연구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음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는 Tukey로 사후검정 하였다.
- 3)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위, 문제해결능력

대상자는 여자가 120명(84.5%), 남자가 22명(15.5%)으로 1학년 39명(27.5%), 2학년 36명(25.4%), 3학년 25명(17.5%), 4학년이 42명(29.6%)이었다. 종교는 무교 81명(57.0%), 기독교 42명(29.6%)의 순이었고, 대상자의 입학동기는 취업률이 53명(37.4%), 적성과 흥미 42명(29.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과만족도는 만족 79명(55.6%), 보통 51명(35.9%)의 순이었으며, 주거형태는 기숙사 68명(42.3%), 통학 60명(42.3%)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F=4.068, p=.008$)과 학과만족도($F=2.793, p=.04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Tukey로 사후검정한 결과 학년에서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스트레스 대처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과만족도는 사후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F=6.089, p=.001$), 학과만족도($F=6.202, p=.001$), 주거형태($F=2.717, p=.04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았으며, 학과만족도가 좋은 학생일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사후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Difference of Stress Coping Style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2)

Categories	Characteristics	n(%)	Stress Coping Styles		Problem Solving Ability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2(15.5)	3.42±.26	.931 (.354)	3.36±.38	-.901 (.369)
	female	120(84.5)	3.36±.31		3.44±.38	
Grade	1 grade ^a	39(27.5)	3.32±.26	4.068 (.008) d>a, b	3.37±.31	6.089 (.001) d>a, b
	2 grade ^b	36(25.4)	3.27±.30		3.27±.32	
	3 grade ^c	25(17.5)	3.37±.29		3.44±.38	
	4 grade ^d	42(29.6)	3.49±.29		3.60±.41	
Religion	christian	42(29.6)	3.39±.32	.431 (.731)	3.51±.41	1.123 (.342)
	buddhism	15(10.6)	3.40±.30		3.35±.42	
	catholic	4(2.8)	3.45±.39		3.46±.44	
	no	81(57.0)	3.34±.30		3.39±.35	
Motivation for admission	parent's recommendation	35(24.6)	3.33 ±.31	.793 (.497)	3.44±.42	.284 (.837)
	employment rate	53(37.4)	3.36±.29		3.39±.38	
	aptitude and interest	42(29.6)	3.42±.32		3.45±.37	
	professional job	11(7.7)	3.29±.34		3.48±.31	
	missing value	1(0.7)	-		-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a	5(3.6)	3.62±.38	2.793 (.043)	3.96±.46	6.202 (.001) a>b>c
	satisfaction ^b	79(55.6)	3.41±.30		3.47±.35	
	moderate ^c	51(35.9)	3.29±.30		3.30±.36	
	dissatisfaction ^d	7(4.9)	3.33±.21		3.46±.26	
Type of residence	commute	60(42.3)	3.38±.32	1.218 (.305)	3.52±.30	2.717 (.047)
	dormitory	68(47.9)	3.38±.30		3.45±.40	
	trace	11(7.7)	3.20±.25		3.37±.36	
	etc	3(2.1)	3.39±.21		3.64±.13	

3.2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 정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 정도는 3.36±.30점이었고,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3.42±.38점이었다.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문제중심적 대처행위(3.60±.42점)였으며, 그 다음이 희망적 관측(3.54±.54점), 긍정적 관점(3.30±.61점), 사회적

지지 탐색(3.27±.43), 긴장해소(3.23±.57), 무관심(3.13±.59)의 순이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명료화(3.50±.51점)였으며, 그 다음이 수행평가(3.48±.45점), 대안개발(3.44±.45), 원인분석(3.42±.40), 계획 및 실행(3.32±.54)의 순이었다 <Table 2>.

Table 2. Degree of Stress Coping Style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142)

Variables	Classification	Min	Max	M±SD
Stress Coping Styles		2.67	4.09	3.36±.30
	Problem focusing	2.25	5.00	3.60±.42
	Wishful thinking	1.80	5.00	3.54±.54
	Positive point of view	1.75	5.00	3.30±.61
	Social support navigation	2.14	4.71	3.27±.43
	Unconcern	1.50	4.83	3.13±.59
	Relief of tension	2.00	5.00	3.23±.57
Problem Solving Ability		2.49	4.71	3.42±.38
	Clarification	4.80	4.80	3.50±.51
	Cause analysis	2.30	4.50	3.42±.40
	Alternative development	2.50	4.80	3.44±.45
	Planning and execution	1.50	4.90	3.32±.54
	Performance evaluation	2.40	5.00	3.48±.45

3.3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총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53, p<.001$). 또한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인 문제중심적 대처행위($r=.66, p<.001$), 긍정적 관점($r=.53, p<.001$), 사회적지지 탐색($r=.42, p<.001$)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인 문제중심적, 희망적 관측, 긍정적 관점, 사회적지지 탐색의 대처행위가 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과 거의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문제해결능력의 계획 및 실행, 수행평가는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희망적 관측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행위 하위영역인 무관심, 긴장해소는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과 거의 모든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긴장해소와 원인분석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ress Coping Style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142)

Variables	Total problem Solving Ability	Clarification	Cause analysis	Alternative development	Planning & execution	Performance evaluation
	r(p)	r(p)	r(p)	r(p)	r(p)	r(p)
Total Stress coping styles	.534(<.001)	.442(<.001)	.463(<.001)	.457(<.001)	.397(<.001)	.398(<.001)
Problem focusing	.660(<.001)	.558(<.001)	.431(<.001)	.565(<.001)	.570(<.001)	.529(<.001)
Wishful thinking	.160(.057)	.197(.019)	.229(.006)	.212(.012)	.003(.976)	.073(.386)
Positive point of view	.530(<.001)	.418(<.001)	.343(<.001)	.393(<.001)	.491(<.001)	.466(<.001)
Social support navigation	.424(<.001)	.345(<.001)	.398(<.001)	.306(<.001)	.338(<.001)	.333(<.001)
Unconcern	-.062(.463)	-.044(.604)	.028(.728)	.007(.930)	-.083(.323)	-.141(.095)
Relief of tension	.125(.137)	.024(.778)	.198(.018)	.081(.336)	.030(.725)	.164(.051)

3.4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명목척도(학년, 학과만족도, 주거형태)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 변수들과 함께 입력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209~.844로 1.0 이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184~4.793으로 기준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 ($F=10.528, p<.001$),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 중 문제중심적 대처행위($\beta=.416, p<.001$), 긍정적 관점($\beta=.257, p=.002$)이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두 변수는 문제해결능력을 54.3%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Affecting Factors on Problem Solving Ability

(N=142)

Variables	B	SE	β	t(p)	R ² (Adj. R ²)	F(p)
(Constant)	67.083	13.556		4.949(<.001)	.543 (.492)	10.528 (<.001)
Grade						
1 grade	-4.066	3.189	-.107	-1.275(.205)		
2 grade	1.163	3.219	.032	.361(.719)		
4 grade	.334	4.547	.010	.073(.942)		
3 grade	.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7.519	6.366	.083	1.181(.240)		
satisfaction	1.027	2.409	.030	.412(.681)		
dissatisfaction	5.659	5.120	.073	1.105(.271)		
moderate	.					
Type of residence						
commute	.334	4.547.	.010	.073(.942)		
dormitory	.357	4.401	.011	.081(.935)		
trace	.					
Problem focusing	2.079	.399	.416	5.215(<.001)		
Wishful thinking	.400	.456	.063	.877(.382)		
Positive point of view	1.772	.564	.257	3.143(.002)		
Social support navigation	.313	.406	.770	.770(.443)		
Unconcern	-.476	.335	-.098	-1.423(.157)		
Rlief of tension	-.021	.658	-.002	-.031(.975)		

4. 고찰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유용한 대처방안의 확인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분석 결과는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미흡하여 간호학과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Won[22], Park과 Lee[2]의 연구를 확인하였으나 두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1학년과 2학년은 교육과정 상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으로 전공기초 과목이 주가 되지만, 3학년과 4학년으로 갈수록 임상실습이나 전공과목 수업,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13, 23], 고학년으로 갈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점차 터득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과만

족도는 스트레스 대처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Jeong과 Koh[24]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학년별 문제해결능력의 분석 결과는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문제해결 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Kim, Park과 Lee[25], Chung[1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은 3학년과 4학년으로 갈수록 문제 중심학습[26]과 시뮬레이션 수업[27] 등이 교육과정으로 일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과만족도가 좋은 대상자일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는데, 이는 Han[28]의 연구와 일치 하였으나 Kim, Park과 Lee[25], Chung[1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문제해결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주거형태의 기타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3명이었으므로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총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점수는 3.36점(5점 척도)으로, Jeong과 Koh[24]의 2.58점(4점 척도), Park과 Lee[2]의 2.65점(4점 척도), Shin과

Jung[29]의 2.40점(4점 척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 더 높았다. Jeong과 Koh[24], Park과 Lee[2], Shin과 Jung[29]의 스트레스 대처행위 도구는 4점 척도의 도구로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나뉘져 있는데, 적극적 대처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소극적 대처는 정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로 구분하여 측정된 것이다. 본 연구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를 측정한 연구가 미흡하여 비슷한 도구로 측정되었던 이와 같은 연구들[2, 24, 29]을 살펴본 결과, 이 도구들의 하위영역이 본 연구의 도구와 유사하므로 비교분석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별 스트레스 대처행위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문제중심적 대처(3.60점)였고, 그 다음이 희망적 관측(3.54점)이었으며, 무관심(3.13점)은 점수가 가장 낮았다. Jeong과 Koh[24], Park과 Lee[2], Shin과 Jung[29]의 연구에서도 적극적 대처가 소극적 대처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본 연구와 이들 연구에서 유사한 점은 간호대학생들이 문제중심적인 적극적 대처행위를 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중심적인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인 희망적 관측, 무관심과의 평균 차이가 미미하여 학생들이 여러 대처행위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olkman과 Lazarus[30]는 다양한 대처를 사용하면 각 대처들이 서로 촉진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한계를 느끼고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될 때 정서중심적 대처도 적절히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이러한 이유로 여러 대처행위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총 문제해결능력 점수는 3.42점(5점 척도)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과 Ko[31]의 총 문제해결능력 점수인 3.54점보다 조금 낮은 점수였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별 문제해결능력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문제의 명료화(3.5점)였으며, 그 다음이 수행평가, 대안개발, 원인분석, 계획 및 실행의 순이었다. Kim과 Ko[31]의 연구에서도 문제의 명료화 영역이 3.8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수행평가, 원인분석, 계획 및 실행, 대안개발의 순이었다. 본 연구와 Kim과 Ko[31]의 연구에서 유사한 점은 하위영역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이 명료화라는 것이며, 계획 및 실행의 순위가 낮다는 것도 유사한 결과가

다. 문제의 명료화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학과 교육에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계획 및 실행은 두 연구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은 전반적으로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할 목표의 차이는 잘 인식하는 반면 대안을 개발하고 계획, 실행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청소년 후기나 성인초기의 발달단계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32] 새로운 해결책을 구성하여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따라서 Tiwari 등[33]의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문제중심학습의 교수학습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통해 상황을 탐색하고 체계적 단계에 맞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Kim, Park과 Lee[25]의 연구에서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내면화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총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스트레스 대처행위 하위영역 중 문제중심적, 긍정적 사고, 사회적지지 탐색은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미흡하여 비교해 보기는 어렵지만, Ebrahimi 등[34]의 연구에서 효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해결능력이 비효율적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문제중심적 대처행위를 정서중심적 대처행위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문제중심적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인 문제중심적, 희망적 관측, 긍정적 관점, 사회적지지 탐색의 대처행위가 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과 거의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희망적 관측은 문제해결능력의 계획 및 실행, 수행평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과정은 비판적 사고를 통한 적극성을 요하는 것이나, 희망적 관측은 원하는 결과가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Folkman과 Lazarus[9]도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여 본인의 긍정적 측면에만 우선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대처행위라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 대처행위인 무관심과 긴장해소가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과 거의 모든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생각된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행위에서 긴장해소는 원인분석과 낮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때 적극적인 문제중심적 대처도 도움이 되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행위 중 정서적 측면의 대처행위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중심적 대처행위와 긍정적 관점의 대처행위로 나타났으며, 이 두 요인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54.3% 설명하고 있었다. 문제중심적 대처행위는 Folkman과 Lazarus[9]가 개발한 도구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활동계획을 세우며, 감정을 유지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려고 노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일부가 문제해결능력의 과정과 유사하여 설명력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중심적 대처는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든지 또는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 근원에 적용하려는 노력이고, 문제해결능력은 주어진 상황을 탐색하고 이해한 후 체계적 단계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책을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35], 이 두 변수는 차이가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중심적 대처행위는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관점의 대처가 문제해결능력의 또 다른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긍정적 재평가를 이끌어 긍정적 방향 안에서 문제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변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학년 등이 있었으나[25, 36, 37, 38], 문제해결

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스트레스 대처를 확인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문제중심적 대처행위와 긍정적 관점의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조절 및 문제해결능력 증진에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제중심적 대처행위와 긍정적 관점의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특정 지역 일 대학 간호대학생으로 편의의 추출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반복연구가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교수진들에게 문제중심학습 방법을 점차 확대하여 적용해 볼 것과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중재프로그램의 개발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M지역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42명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6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 중 문제중심적, 긍정적 관점, 사회적지지 탐색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중심적 대처행위와 긍정적 관점의 대처행위였고, 이 두 요인은 문제해결능력을 54.3%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는 적극성이 부족한 학생들과 힘든 학과수업으로 인해 지치고 스트레스가 과중되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문제중심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위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 중재프로그램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Y. S. Kang, S. K. Hwang,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pp. 3301-3309,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7.3301>
- [2]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4, pp. 267-276, 2011.
- [3] K. N. Kim, "Affecting factors on competence of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2, no. 2, pp. 55-65, 2014.
DOI: <http://doi.org/10.17547/kjsr.2014.22.2.55>
- [4] Y. J. Son, E. Y. Choi, Y. A.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18, no. 4, pp. 345-351, 2010.
- [5] H. M. Kim,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on th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1, no. 4, pp. 518-527, 2002.
- [6] H. S. YU, "A study on self-esteem and turnover intension of new nurses",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2010.
- [7] J. H. Park, "The relationship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assertiveness training to assertiveness behavior and conflict management mode",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3, no. 2, pp. 556-565, 2002.
- [8] R. S. Lazarus,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84.
- [9] S. Folkman, R. S. Lazarus,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1, no. 3, pp. 219-239, 1980.
DOI: <https://doi.org/10.2307/2136617>
- [10] H. J. Park, S. I. Sun,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14-23, 2010.
DOI: <http://doi.org/10.5977/JKASNE.2010.15.1.014>
- [11] S. K. Chu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8, no. 1, pp.71-78, 2011.
- [12] R. W. M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2009.
- [13] J.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rsing education performance item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1, pp. 185-198, 2012.
- [14] J. S. Yu, S. H. Hwang, Y. J. Choi, "Research articl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13, no. 4, pp. 510-517, 2013.
DOI: <http://doi.org/10.2307/2136617>
- [15] E. A. Thompson, L. L. Eggert, B. P. Randell, K. C. Pike, "Evaluation of indicated suicide risk prevention approaches for potential high school dropou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1, no. 5, pp. 742-752, 2001.
DOI: <https://doi.org/10.2105/AJPH.91.5.742>
- [16] I. S. Park, "The effect of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cem program solving ability and nursing competency",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vol. 11, no. 2, pp. 15-25, 2017.
DOI: <http://doi.org/10.18014/hsmr.2017.11.2.15>
- [17] P. Srivastava, M. Kira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self esteem, way of cop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school going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vol. 10, no. 2, pp. 199- 209, 2015.
- [18] M. Synder,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s*, 2nd edition, Albany, NY: Delmar Publishers Inc, 1992.
- [19]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 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0] G. S. Oh, J. S. Han, "A study on the grief and coping pattern of mothers who have a chronically ill child" *The Korean nurs*, vol. 29, no. 4 pp. 73-87, 1990.
- [21]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 [22] Y. J. Won,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9, no. 1, pp. 123-131, 2015.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5.9.1.123>
- [23] H. D. Sin,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on stress coping styl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2016.
- [24] Y. J. Jeong, C. K. Koh, " Effects of personality and coping behavi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4, no. 4, pp. 2234-1668, 2016.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6.24.4.296>
- [25] D. H. Kim, J. Y. Park, N. Y. Le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3, pp. 1551-1563, 2012.
- [26] J. J. Yang,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5, no. 2, pp. 159-165, 200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09.15.2.159>
- [27] C. F. Medley, C. Home, "Using simulation technology for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4, pp. 31-34, 2005.
- [28] S. H. Han, "Factors affecting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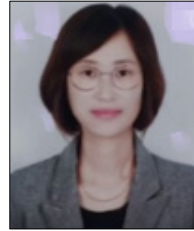
no. 5, pp. 245-254, 2017.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7.05.53>

- [29] S. J. Shin, M. S.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stress coping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5, pp. 441-455, 2016.
DOI: <https://doi.org/10.22143/HSS21.7.5.23>
- [30] S. Folkman, R. S. Lazarus, "If it changes it must be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8, no. 1, pp. 150-170, 198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8.1.150>
- [31] J. S. Kim, I. S. Ko, "The effects of learning styles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4, pp. 462-472,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nsne.2016.22.4.462>
- [32] J. S. Yoo, S. J. Chang, E. K. Choi, J. W. Park,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8, no. 3, pp. 410-419, 2008.
DOI: <https://doi.org/10.4040/jkan.2008.38.3.410>
- [33] A. Tiwari, P. Lai, M. So, K. Yuen,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problem based learning and lecturing on the development of student's critical thinking", *Medical Education*, vol. 40, no. 6, pp. 547-554, 2006.
- [34] H. Ebrahimi, S. B. Atri, S. Ghavipankeh, A. Farnam, L. Gholizadeh, "The effect of training problem-solving skills on coping skills of depressed nursing and midwifery students",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 2, no. 1, pp. 1-9, 2013.
DOI: <https://doi.org/10.5681/jcs.2013.001>
- [35] P. P. Heppner, C. H. Peterson,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29, no. 1, pp. 66-75, 1982.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29.1.66>
- [36] Y. M. Kim,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freshm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6, no. 2, pp. 190-197, 2010.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2.190>
- [37] Y. A. Kim, Y. A. Kim,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9, pp. 589-598,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9.589>
- [38] H. J. Yang,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2, pp. 6387-6394,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12.6387>

유 미 옥(Mi-Ok Yu)

[종신회원]



- 2012년 2월 : 충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2017년 2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스트레스, 소아청소년 간호